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호 [루체 제25153호] 주제 105(2016)년 1월 10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죄
성이 천지를 진감시킨 주체
105(2016)년 새해에 즈음
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
하시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진행된
이번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이고 충정이며 만고결세
의 애국자,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담력, 드림없는 선군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
이다.

오늘의 특대사변을 통하여
우리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족시킨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그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다
는 들통한 배심을 훤힘으로
가다듬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
하시는 불멸의 혁강국건설
구상과 업적을 백두산총대로
결사보위해갈 철석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뿜이고 있다.

인민무력부를 축하
방문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인 인민군군인
들이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러치며 열광적으로 환영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인민군 명예
위장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명예위장대를 사열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인민군 총
정치국장은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부장 유헌대장 박영식동지, 조선
인민군 총참모장 유헌대장 리영길동지가
축하의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
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조선인
민군 총참모부 지휘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
회의실에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그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에
대하여 통보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새해벽두에 우리가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
들의 혼란에 휘둘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칠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
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
한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올해 인민군대사업에서
들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에 대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에
들어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첫걸음을
힘 있게 내디딘 인민군대의 미더운 모습을 보니 새
힘이 솟고 우리가 함께 가는 주체혁명
위업의 앞길에 영광의 만리길이 펼쳐진
것만 같아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전변의 해인 2015년에 백절불굴의
붉은기정신으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
군력강화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요구조를
마다에서 세기에 빛날 영웅적위훈을 세운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지난해 당이 밝혀준 투쟁강령대로 힘차게
달려오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을 강화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
하게 수호하였으며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경축 열병식을 전군사상 최대규모, 최상
의 수준에서 성대히 거행하여 온 나라 인
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신심을 안겨
주고 우리 혁명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혼련혁명의 열풍속에서
형식주의, 고정경식화, 멋따기식 혼련방식
에서 벗어나 전쟁환경에 점근된 실용적
훈련을 강화하여 부대들의 실전능력을
현저히 높이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
일군대회와 제4차 포병대
회,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
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을
계기로 인민군대를 무
적 필승의 최정예 혁명강군
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리정표들이 마련
되게 되었다고 가르치시
였다.

인민군대는 조국의 번영
파 인민의 행복, 문명강국
의 터전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
시대를 상징하는 미래과학
자거리와 평양국제비행장,
갈마비행장, 1월 18일 기계
종합공장, 민경대학생
소년궁전,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기념비적 창조물마다
에는 인민군장병들의 고귀
한 넋파피, 깨끗한 탕심의
땀방울이 전하게 어려있다고
하시였다.

온 세상을 들었다놓은
라선땅의 전화위복의 기적도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에 의하여 창조되었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인민군대가 이루어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백옥같은
애국충정과 순결한 랑심과
의리, 무한한 혼신성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견인
불발의 투쟁으로 군력강화와 조국
수호,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위대한 승리와 전변을 안아온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전투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
위업수행의 력사적분수령으로 펼친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
로 빛내이는 것은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의
총적인 투쟁목표이며 이 중대하고 책임
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당중앙은
인민군대에 제일 큰 기대를 걸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보위하자!》, 이것이 올해 인민
군대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라고
밝히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체적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우리 국가의 자강력을 키우며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승리에서 더 큰 승리의 평마루를 정복해나가는것이 우리 당 평도방식의 특성, 독창성이며 이 변함없는 원리, 이 특출한 혁명령도방식으로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펼승불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대가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혁신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당의 사상판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평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선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당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뜻, 숨결을 같이 하여야 하며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친결반결의 천연요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안에는 오직 당의 사상과 숨결만이 맥박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전투적파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름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자자구구 깊이 연구학습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올해에는 전군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중요 한 루정구호로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는 올해 포병훈련에서 새로운 전면을 일으켜 포병무력의 질적강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에서 시사없이 단발에 명중하는것을 포병훈련에서 도달하여야 할 기본목표로 내세웠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올해에도 실지싸움에서 부닥칠수 있는 정황과 환경을 모의하여 그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를 찾아 대책하는데 중심을 두고 부대들의 실전능력을 결정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로선을 쟁기 등으로 들어쥐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당에서 제시한 필수5대교양에 회력을 집중하며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둔튼히 준비시키고 군력강화와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청년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군혁명의 전도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청년군인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단련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청년사업을 당정치사업의 3대축의 하나로 들어쥐고 적극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정치적으로 강화하는데서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인민군대에서 청년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여 청년군인들을 충대와 함께 청춘시절을 빛내여나가는 청년강국의 핵심풀간으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진위로 억세계 키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안에

사람파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전군이 사람파의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방법으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판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사업과 생활을 군사규정파교법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안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말끔하여 군인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루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짚은 방법론을 가지고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군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파업들을 결사판월하는것을 올해 후방사업의 총적 목표로 정하고 3대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며 후방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져 전군의

모든 중대와 대대를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 정든 고향마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에도 부강조국건설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는 항상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진실도 우리가 다 말자!》는 애국의 구호를 들고 힘찬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해나갈때 대한 당중앙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반들고 문명강국건설의 뿌리가 되고 돌격대가 될 때 이 땅우에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수 없었던 고귀한 인민의 재부들이 차넘치고 조국의 푸른 하늘에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3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반드시 대승전고를 울려 당 제7차 대회 정신을 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담보할뿐 아니라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대에서 제122호양묘장을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훌륭히 완공하고 각급 부대, 구분대들에서 나무심기와 비배 관리를 질적으로 하여 주둔지역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풀기 차게 밀고 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인민군대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국방력강화와 싸움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리면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하는 첨단기술성파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는데서 최근년간에 진행된 부문별대회들의 기본정신을 일관하게 들어쥐고 철저히 편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시었다.

오종흡 7현대 청호생취운동 발단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오종흡 7현대 청호생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서도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명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부대, 구분대들을 본보기로 내세워 전군의 앞장에 서도록 하며 여러 가지 집단적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세기



환호성이 러저울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고 인민군대가 완벽한 공격과 방어능력을 겸비하고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도전에도 단호한 혁명전쟁으로 대답할수 있게 대사변을 위한 만반의 전투준비상태를 갖출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숨결도 뜻도 함께 하며 혁명의 한길을 끽끗이 걸어온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며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려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새해 정초부터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 하시여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울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찰하여 조국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혁명군대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를 주름잡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혁명강군의 최고지휘기판 성원답게 배우같은 충정과 투철한 혁명정신, 세련된 병군술을 지니고 군사정치

사업전반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에 무한히 충실히하여 올해 인민

군대앞에 나선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특전에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장내에는 폭풍같은 <만세!>의



선군조선의 위용을 높이 떨친 국방부문 영웅들의 신념과 투쟁본때로

승리의 포성으로 준마처녀들의 심장은 높된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혁신자들이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린다.

첫 수소탄의 죄성이 그들의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 있다. 위대한 한 명도 자나가는 조사공들…

모두의 눈빛이 만만치 않았다. 『신바람들이 났습니다. 성수 가 난 우리 동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손마다 불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금지에 넘친 현경철동무의 목소리였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공민적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소초를 걷기까지며 자기 맑은 일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역사의 흐성이 울린 6일 오후 우리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조사장을 찾았다.

생산과 현경철동무는 대번에 우리를 현장으로 이끌었다.

만가동을 걸 조사기마다에 빠른 누에고지를 공급해주는

자전작업반원들, 그들에게 뒤집 세와 분주히 기대사이를 오고가며 재치있게 끊어진 실을 이어나가는 조사공들…

모두의 눈빛이 만만치 않았다. 『신바람들이 냉했습니다. 성수 가 난 우리 동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손마다 불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금지에 넘친 현경철동무의 목소리였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공민적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소초를 걷기까지며 자기 맑은 일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역사의 흐성이 울린 6일 오후 우리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조사장을 찾았다.

생산과 현경철동무는 대번에 우리를 현장으로 이끌었다.

만가동을 걸 조사기마다에 빠른 누에고지를 공급해주는

김정향동무는 지난해에 도 4년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혁신자였는데 조사기마다 5개에 해당되는 100개의 추를 달당하였다고 한다.

조사기의 동음이 귀맛좋게 울리는 기대결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공민적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소초를 걷기까지며 자기 맑은 일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역사의 흐성이 울린 6일 오후 우리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조사장을 찾았다.

생산과 현경철동무는 대번에 우리를 현장으로 이끌었다.

만가동을 걸 조사기마다에 빠른 누에고지를 공급해주는

결국 그는 벌써 남들보다 썩 앞선 새월이 살고있는셈이였다.

고향이 강남군인 그는 집안의 단발이다. 그의 아버지는 늘

김정향동무네 지배에게 말은 일에 성실해야 한다고 당부해준

했다. 그 당부를 안고 김정향동무도, 통일거리의 어느 한 광

복공장에서 일하는 그의 동생도

혁신자로 집단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첫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조사직장의 생산현장에서는 일제히 단체소리가 터져울었다.

그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저는 원래 올해에도 4년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목표로 걸었었습니다. 하지만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특별중대 보도에 접하는 순간 저의 목표는

달라집니다. 저의 올해목표는

4년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어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3집장 1작업반 조사공 팀봉향

동무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우리에게 특별중대 보도에 접하면 때의 일을 말해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첫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조사직장의 생산현장에서는 일제히 단체소리가 터져울었다.

너무 기뻐 밤을 통동 구르는

처녀도 있었고 풀어오르는 강격

과 적정으로 두눈을 슬反正에는

수리공도 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수소탄

시험 완전성공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 할 대성사이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파시된

역사적대장기인데이야.

바로 그 순간부터 현장은

불도 가나마냥 끝냈다. 조사공들이

사람이 말없는 경쟁이 벌어진것이

였다.

그들은 현진적인 노력으로 지

난 6일 공장의 생산실적은

160%로 향상되었다.

드높은 결의와 집단주의의 힘

속에 풀려간 보람찬 로동의 하

루, 그 하루의 더불어 우리 미

운준마저너들의 전진속도는

비약적으로 뻗어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오은별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 수필 ●

새아침

하건만 자연의 태양은 있어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지

못했었기에 새날의 동이 트는

원수님의 영상을 뵈니며

평그리 바치시여 우리 조국파

인민이 나가는 길에 창조와

빛날이다.

신문화 레메비온을 통하여

지난 1월 3일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때 한 최종

명령서에 수표로 제작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뵈니며

한데 어리석은 리포트를 제기했다.

나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하루밖

사이에 거인이 된 편결음도

성큼성큼 내짚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놓으면 편결은 남에

여러있는 모습들…

그들도 가슴에 새겼으리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의 첫

기슭에서 맞이한 주체의 핵강국

의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크나큰 회열과 궁지때문이

아니라.

나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하루밖

사이에 거인이 된 편결음도

성큼성큼 내짚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놓으면 편결은 남에

여러있는 모습들…

그들도 가슴에 새겼으리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의 첫

기슭에서 맞이한 주체의 핵강국

의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크나큰 회열과 궁지때문이

아니라.

나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하루밖

사이에 거인이 된 편결음도

성큼성큼 내짚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놓으면 편결은 남에

여러있는 모습들…

그들도 가슴에 새겼으리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의 첫

기슭에서 맞이한 주체의 핵강국

의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크나큰 회열과 궁지때문이

아니라.

나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하루밖

사이에 거인이 된 편결음도

성큼성큼 내짚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놓으면 편결은 남에

여러있는 모습들…

그들도 가슴에 새겼으리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의 첫

기슭에서 맞이한 주체의 핵강국

의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크나큰 회열과 궁지때문이

아니라.

나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하루밖

사이에 거인이 된 편결음도

성큼성큼 내짚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놓으면 편결은 남에

여러있는 모습들…

그들도 가슴에 새겼으리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의 첫

기슭에서 맞이한 주체의 핵강국

의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크나큰 회열과 궁지때문이

아니라.

나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하루밖

사이에 거인이 된 편결음도

성큼성큼 내짚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놓으면 편결은 남에

여러있는 모습들…

그들도 가슴에 새겼으리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의 첫

기슭에서 맞이한 주체의 핵강국

평화협정체결에 응해 나서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는 날이 갈 때에 따라 국제사회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어온은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만이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것이라고 한걸같이 주장해나서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맹장과 태도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천만민 지당하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있는 당사자인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미핵화를 통해 평화협정으로 토의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계속 운운하는것은 문제를 해결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하자는 속임수에서부터 출발한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적대시정책과 핵군사연습을 통해 평화체적으로, 단식으로 확대해 서 그 무슨 미핵화에 대해 떠들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미국의 미핵화타령은 우리의 무장해제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더한층 높여려 하고있다. 그야말로 횡당무게 한 켤변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미핵화에 대해 말할 체면이 없다. 수십년전부터 남조선에 1 000개가 월선 넘는 핵무기를 배치한것도 미국이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한 화제를 어려지며 꾸민것도 아니란 미국이다. 한해에도 몇차례씩 전략핵폭격기들이 미국본토나 팜도로부터 무차별비행으로 군장 조선반도상공에 진입하여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고 있으며 항공모함과 해미싸일잠수함들이 조선반도수역에서 『평양방위』 목표로 한 미핵전쟁연습에 미쳐돌아가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외세에 의한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받고있다. 우리더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미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떠난 강도적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가해지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부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위해보았다.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도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아보았다. 쟁투 및 대무구도에서 비핵화로의를 선행시키기로 하였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동시에 통일로 토의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안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오바마행정부가 북조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통안 북조선의 핵 및 미싸일개발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북조선과의 전쟁을 비비지 않는 상태이다. 미국이 제재 강화를 만능의 처방으로 보지만 북조선이 굴복할것이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위험은 하루빨리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평화협정체결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나갔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조미가 서로 평행히 맞서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질수 없다. 지난해 8월 조선반도정세가 한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왔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긴장체계의 악순환과정이 계속되는 것을 피할수 없고 정세가 전쟁경계로 치달리 되는 것을 불가피하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져있다.

미국내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행 정부의 『전략적인내정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며 대조선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올려나오고있는 것은 우연한 일 이 아니다. 클린턴행정부에서 국방성·전파방지정책담당 부서판보로 근무한 적 있는 미셸 윌더스터인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조선핵위협을 무시하는것은 위험한 실수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북

조선은 핵질보유량을 늘이는 한편 장거리미싸일과 미싸일발사장치, 소형핵탄두개발에서 진전을 이루하였다. 지금까지 북조선은 제제에도 충분히 대처해 왔다. 지금은 미국이 북조선과의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파악한 행동에 나설 때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국 케이토인구소의 어느 한 연구사도 잡지 『포브스』에 네 글에서 『이행정부가 평화협정과 판계정상화회담을 제안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오바마행정부가 북조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통안 북조선의 핵 및 미싸일개발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결과를 초래할 북조선과의 전쟁을 비비지 않는 상태이다. 미국이 제재 강화를 만능의 처방으로 보지만 북조선이 굴복할것이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위험은 하루빨리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평화협정체결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나갔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조미가 분별을 잃고 우리에 대한 대조선적시정책에 이어 미군을 향해 달릴수록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절망적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수소탄시는 그에 대한 명백한 신승으로 된다. 미국은 막강한 게 지봉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명백히 말하건대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정책』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미국에 우리를 기다려보았으면 실기 기다려보라고 말해 준다.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조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시간은 우리 편이었으며 승리도 우리의 것였다. 미국은 이제라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미국이 무엇때문에 시대착오적

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집요하게 추구하는가 하는것이다.

이제 와서 달리될수 없는것은 파산에 처한 한 흐 미행정부의 운명이다. 지금 미국과 동맹 오바마는 조미대결에서 쓰맛을 토후히 본 선임자들의 폐비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그렇다고 말기에는 이를 오늘 새로운 대인을 내놓고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조미관계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수수무책으로 애매 불명에스러운 대통령으로 유행하느니 차라리 다 거칠이 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유지하여 관망이라도 부지해보려는 심산이다. 미국의 어느 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북조선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이나 외교관계수립이 미국에 불리한 측면보다 유리한 측면이 더 많다. 미국이 북조선에 해무기를 폐기하라고 고집하는 것은 시간을 반대로 돌리라는 유동한 고집과 같다.』라는 글이 실렸다.

현실은 이렇다. 미국이 분별을 잃고 우리에 대한 대조선적시정책에 이어 미군을 향해 달릴수록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절망적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수소탄시는 그에 대한 명백한 신승으로 된다. 미국은 막강한 게 지봉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명백히 말하건데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정책』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미국에 우리를 기다려보았으면 실기 기다려보라고 말해 준다.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조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시간은 우리 편이었으며 승리도 우리의 것였다.

미국은 이제라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라명성

주제넘게 놀아대는 정치난쟁이

최근 유엔주재 일본대사관에서는 어느 한 기자 회견장에 나타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인에서의 이른바 일본의 역할에 대해 혁실했었다. 그는 수리아와 리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의 정세를 기록하면서 미치도록 저들이 국제문제해결의 주요당사자라도 되는듯이 돌아됐다.

일본이 유엔주재 일본대사관 비상임리사국으로 당선되어 울해부터 2년간의 임기를 맡게 된데 대해 사기고 충원한 모양이다.

가소로운것은 그가 『일본이 이따금 비상임리사국으로 들어오는것보다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계속 있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을 상임리사국을 포함한 선원국들에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 한것이다. 말하자면 비상임리사국으로서의 2년간의 임기가 성취지 않으니 상임리사국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유엔인천보장리사회회의 상임리사국자리를 노리는 일본의 저열한 속내를 다시한번 드러낸것이라 고 할수 있다.

비상임리사국으로 선출되어 바쁘게 일본은 『적극평화주의의 리념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안정보장리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해나가겠다.』느니 뛰어나면서 임기중에 저들의 『숙명』인 상임리사국진출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려는 기도를 토��화하였다.

일본은 침략전쟁과 반인권범죄로 얼룩진 죄 많은 과거사를 인정하는 나라이이다. 폐당후 수십년 이 히로도쿄 파괴기념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은 죄위하고 오히려 역사와 평화를 추구하는 노릇이 되어온 것이다.

특히 미국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실로 격분을 먹힐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지난 기간 미군과 국구주부의 부상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일본은 일부로 끌어들여 놓아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하내비처럼 섭기면서 반공화국으로서의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실로 격분을 먹힐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기간 미군과 국구주부의 부상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난쟁이에 불과한 일본이 치중한 군경외교와 전모술수로 유엔인천보장리사회의 상임리사국자리를 노리고 활동하고자 했던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천보장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정책』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우둔한 고집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인